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전매체> 3. 9.(목) 23:00	-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오지영 (044-204-7550)
		담당자	사무관	박승호 (044-204-7556)
			주무관	백준우 (044-204-7554)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김창환 (044-204-7714)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 비반(Biban),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문을 열다

- 이영 장관, 10개 중소·벤처기업과 동행 및 기조연설 -

□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인 비반(Biban) 참여를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시장 진출 물꼬를 트고 세계(글로벌) 협력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비반(Biban) 2023'에서 한국 기업관을 (현지시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비반(Biban)은 아랍어로 '문(door)'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17년부터 사우디 국내 행사로 열리다 올해부터는 국제 행사로 본격 확대되어 개최되었다.

지난해 11월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국내 최대 창업기업(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에 참석하여 이영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며 한-사우디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양 장관이 지난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재회하며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비반(Biban) 참여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사우디 측에서는 한국 기업의 참여 편의를 위해 등록마감 기간을 특별히 연장해주고, 전시회 공간(부스)과 숙박(기업당 1개)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행사 일정상 불가피하게 진행된 5일간의 짧은 모집공고 기간에도 불구하고 1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과 비반(Biban)에 크나큰 관심을 보였다.

* 최종 선정 기업 : 갤럭시코퍼레이션, 넥스트온, 닷, 더핑크퐁컴퍼니, 시큐레터, 에이치디티, 에이치투오호스피탈리티, 엔젤스윙,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 베스텔라랩

개막식 직후 진행된 기조연설을 통해 이영 장관은 창업기업(스타트업) 한국(코리아)와 한국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과 경쟁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높은 발전 잠재력과 결합되어 상승 효과(시너지)를 내고 세계시장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영 장관은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직후부터 준비해온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 물꼬가 드디어 트이기 시작했다”며,

“70년대 『중동 열풍(붐)』이 건설, 석유화학, 설비(플랜트) 중심이었다면, 『제2의 중동 열풍(붐)』은 기저기술(딥테크)과 같은 신기술 분야가 중심이 될 것이며 이것이 창업기업(스타트업) 한국(코리아)에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전체가 영업사원 및 지원부서가 되어 돕겠다”고 하였다.

또한, “올해 1월 순방시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및 디엠아이(DMI)와 체결한 인수합병(MOU), 어제 개소한 두바이 세계(글로벌)사업(비즈니스)센터(GBC), 오늘 사우디 비반(Biban) 참석은 중동시장 공략의 시작일 뿐이라며, 상반기 중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후속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복합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수출 활로를 열고 투자유치를 돕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